

백운계곡서 펼쳐지는 전통 술 축제 한마당

제1회 대한민국 술 축제 22~23일 개최

예부터 우리민족이 즐기던 전통 술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술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술 축제'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관광지에서 열린다. '술과 갈비'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의 22개 전통주 업체와 포천지역 8개 막걸리 업체 등 30여 업체가 참가해 약 200종의 명주를 선보이게 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장에는 선현들의 풍류를 재현하기 위한 옛 정경과 목로주점, 사냥채 형태의 주막이 조성돼 백운산 단풍과 어우러지며 가을날의 운치를 한껏 더해준다.



제1회 대한민국 술 축제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축제 기간 중, 조선시대 고을의 유생들이 해마다 학교나 서원에 모여 예의와 절차를 지키며 술을 마시던 '함음주례' 시연이 펼쳐지며,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과 타악 퍼포먼스,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도 마련된다.

또 술을 주제로 한 노래자랑과 OX퀴즈, 막걸리 빨리 마시기 등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축제 주무대 주변으로는 무료시음장과 특산물장터, 전통주막거리 등이 조성된다.

포천시는 이 축제를 통해 전국의 특색 있는 전통주·민속주를 발굴, 육성하고 이동막걸리 등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이동갈비와 백운계곡 관광지 주변의 지역경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전통 술과 갈비 등의 먹거리, 특산물, 백운산 단풍, 문화예술행사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술 축제'가 독특한 주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축제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市를 대표하는 가장 명예로운 賞

제3회 포천시 문화상 시상



유봉현(문화예술부문), 김만수(교육부문), 김영진(지역사회개발부문), 최광규(체육부문)

제3회 포천시 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8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봉현(柳鳳鉉) 전 포천향교 전교가 문화예술 부문, 김만수(金萬壽) 축적초등학교 교장이 교육 부문, 김영진(金榮珍) 경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가 지역사회개발 부문, 최광규(崔廣圭) 포천시청 역도부 코치가 체육 부문에서 각각 포천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유봉현(82·남) 수상자는 포천향교 전교로 6년간 재직하면서 포천시 향교 부설 연구회 및 청성한시사를 창립해 고전번역요원과 후진양성에 힘쓰고, 전국한시백일장과 포천한시백일장 고선위원을 8회 역임했으며, 성균관장 추추제 33회 한시백일장에서 '참방'에 입상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네차례 입상한 것을 비롯해, 20점의 고전을 판독하고 300여편의 한시를 짓는 등 포천시 문화예술포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만수(54·남) 축적초등학교 교장은 교직생활 35년 중 27년여를

포천시 관내 산간 오지 초등학교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창의적인 학습방법과 보충학습자료 개발, 자주학습력 신장, 알뜰시장 및 쓰레기 없는 학교 추진, 인성시립학교 운영 등을 통해 포천시 교육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포천시 청소년상담실 소장이기도한 김영진(47·남) 경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청소년 상담문화 정착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역과 학교를 순회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가정교육 및 청소년 인성·진로교육을 주제로 강의하는 한편, 청소년 소식을 발간하고 캠프 문화 보급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인성함양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최광규(42·남) 포천시청 역도부 코치는 포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재직 시 경기도체육대회 3연패를 달성하고 2004년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포천시청 직장경기부 코치로서 전용성, 이우성, 조창호, 양영철 등 우수선수를 육

성해 한국신기록을 5회 경신하고 세계대회, 아시아게임, 전국대회에서 다수 입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천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올해 제3회 포천시문화상 후보로는 모두 10명이 추천됐으며 지난 14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으나 학술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시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을 받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한편, 풍요로운 문화복지가 구현되는 포천시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시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1년 포천군 문화상으로 제정돼, 올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았으며, 2003년 시 승격에 따라 제1회 포천시 문화상으로 새롭게 명명된 후, 이날 제3회 시상식이 거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육신 유응부 선생 제향

유림 선생의 고귀한 충절 기려



지난 13일 소흘읍 무릉리 충목당에서 사육신 유응부 선생 제향이 있었다.

지난 13일 소흘읍 무릉리 충목당에서 사육신 유응부 선생 제향이 있었다.

이 자리에 한국을 대표하는 유림과 포천지역 유림들이 참석해 유응부 선생의 고귀한 충절을 기렸다. 소흘읍 무릉리에서 출생한 유응부 선생은 키가 크고 용모는 장엄

하고 성품이 강직해 세종과 문종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무과에 급제해 평안도 절제사를 거쳐 세조 1년 1455년 동지중추원사에 이르렀다.

단종복위를 위해 성삼문, 박팽년 등과 세조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명나라 사신 초대연에서 실행하기

로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함께 모의한 김질, 배신으로 이 사실이 세종에게 알려져 주모자인 성삼문, 박팽년, 유응부, 하위지, 이개, 유성원 등 6명이 국문을 받게 되었다. 모진 고문에도 얼굴 빛 하나 변하지 않고 세조반정을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생육신중의 한사람인 남효운은 육신전을 지어 단종을 위해 순절한 충신들의 역사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했다고 하는데 단종복위의 주모역은 성삼문 박팽년이 고 활 동책은 유응부이기 때문에 삼주역이라고 했다.

사육신이라는 명칭은 남효운이 육신전을 지으면서 확정되었고 1691년(숙종 11년) 단종을 위해 화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 배식록(御定配食錄)을 이 충신들의 제사를 지내도록 내리는 명단을 만들어 제차 사육신으로 확정됐다.

충목당은 사육신의 충목공 유응부 선생을 봉안한 제단이 배향된 곳으로 고종때 포천의 대 유학자 유기일(柳基一) 선생이 주동이 되어 포천 유림들과 충목공과 같은 단종 충신 한남군과 안치 선생의 묘시고 후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단을 복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2

공직자의 귀감이요 청백리였던 오리(梧里) 정승 이원의 1547년(명종2) ~1634(인조12)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이원익은 태종의 자 익녕공(益寧君)의 4대손, 자는 공려(共勵), 호는 오리(梧里),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임금이 그의 검소한 생활에 대하여 가히 경의를 포함한다 하였다. 재상을 지내고도 초가집에서 쓸쓸하고 비바람도 못가리는 형편이어서 임금이 집을 지어준 청백리의 표본이다. 그는 원래 성품이 대쪽같이 곧아서 사교를 싫어하며 공사가 아니면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유성룡(柳成龍)만은 그의 슬기로움을 알아주었다. 1588년(선조15) 승지가 되었다가 관직에서 물러나 쉬고 있다가 안주 목사(安州牧使)가 되었다. 안주는 본래 국방상 중요한 곳이었으나 그즈음 크게 황폐되었고 기근이 심하였다. 그는 부임길에 조만식을 국고에서 얻어 가지고 가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대과하는 종자로 쓰게 하였다. 그해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 백성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자연히 부근의 산적과 도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군졸들의 방수(防戩) 4번제를 6번제로 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원만하게 다스렸다. 안주에는 원래 뽕나무가 없었는데 이원익이 백성들에게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양잠업을 크게 일시켜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를 이상공(李桑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선조는 오랫동안 그의 공로와

고생을 참작하여 공조참판에 임명하고 이어서 대사헌, 호조와 예조의 관서에 임명하였다.

그가 46세 되던해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명을 바쳐 진중보국하였다. 전황이 급박해지자 그를 평안감사로 임명하여 먼저 가게 하였다. 전세가 기울어지자 안주목사로 있으면서 은혜있는 정치로 민심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내어 백성을 위무해서 왕의 피난길을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이다. 왕이 개성을 거쳐 평양에 이르렀을 때 장졸 3000을 거느리고 평양을 전력 수비하여 왜군의 진격을 저지하였으나 역부족으로 평양이 함락되자 정주(定州)로 후퇴하여 세인 군사들을 모아 전력을 재정비하여 대동강 서쪽을 잘 방어하였다. 그해 8월 명나라 원군과 협력하여 평양을 탈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다가 이듬해 명과 협력하여 평양을 탈환하여 왕이 환도하는 길을 터 놓았다.

마흔아홉 되던 1595년(선조28) 그는 우의정이 되어 입조하였다. 지방장관으로 있다가 입상

(入相)하는 것은 번임배상(潘任拜相)이라하여 매우 드문 일이고 일종의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 사도체찰사(四道體察使)를 겸임하였다.

당시 혹심한 전란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정쟁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에 대한 시비도 여러 번 일어났다. 그는 이를 개탄하고 "공의(公議)는 숨을 죽이고 봉당은 바람을 이루어 국사는 날로 쇠퇴하여 황의(橫議)가 함부로 행하여 짐은 조정의 큰 수치가이다"라고 상소하였고 한때 비술을 버리고 금양에 퇴거까지 하였다.

그는 임진왜란때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이 되었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책봉되었다.

그에 대한 선조의 신임은 남다른 바가 있었다. 상신사백(相臣賜名)은 조선왕조 전시대를 통하여 성종때의 황희(黃喜), 선조때의 이원익, 숙종때의 허목(許穆), 단 세 번밖에 없는 일로서 그의 청렴한 관직생활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고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선조는 돌아가기전 세자에게 세신 가운데 이원익이 특출한 사람인데 과인이 제대로 스지 못하였으니 앞으로는 그에게 예를 후히하여 성심껏 하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또한 관직을 기필코 사양하는 그에게 "경은 종책대신으로 나를 버리고 장차 초나라로 갈 것인가 진나라로 갈 것인가"하며 간곡히 말했다는 실록의 기사도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운악산에 펼쳐진 가을단풍

제4회 운악산 단풍축제 15~16일 개최

아름다운 가을단풍으로 명성이 높은 화현면 운악산에서 올해로 4번째 마련된 단풍축제는 등산대회와 공연, 전시, 경연, 체험행사 등 짜임새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하루 동안 열렸던 것과 달리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축제가 펼쳐졌으며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남)가 주최했다. 축제 주무대는 화현면 화현리에 있는 운악산 입구 광장에 마련됐다.

축제기간 동안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국악공연과 7080 보컬그룹 공연, 난타공연, 노원구 스포츠댄스

시범, 초등학교 풍물놀이 및 바이올린 합주 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 전통술, 잣막걸리, 포도 등 지역 특산품이 전시·판매됐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등산대회를 비롯해 O·X 퀴즈와 장기자랑, 민요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또 재미로 보는 시주 팔자코너, 장승각기 및 기쁘게주기 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운악산 단풍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운악산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woonak.co.kr)도 개설했다. 해발 935.5m의 바위산인



화현면 운악산에서 올해로 4번째 마련된 단풍축제는 등산대회와 공연, 전시, 경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운악산은 관악, 감악, 화악, 송악과 더불어 경기 5악 중의 하나로 특히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이 유명하며 산 곳곳에서 풍성한 수량의 폭포와 기암괴석을 볼 수 있다. 유적으로는 공예성터, 궁궐터, 신선대 등이 있으며 특히 주봉인 만경대를 둘러싸고 커다란 바위들이 봉우리마다 구름을 뚫고 솟아있어 신비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楓菊佳節吟 先年邊妍連 (중국가절음) (선연변연연)
秋色야濃賞客先(추색방음상객선)
滿山楓菊立冬前(만산봉국립동전)
輝流廣野煙霞裏(휘류광야연하리)
風起長提水石邊(풍기장제수석변)
詠歎詩壇陽氣暢(영탄시단양기창)
絳情酒席月光妍(정정주석월광연)
稍親燭火當佳節(소친촉화당佳节)
三味看書夜雨連(삼미看书夜雨連)

초대 漢詩
錦岩 양재창
포천향교 전교
김선희
마출문학회 회원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6)
포천의 '암각문' (抱川之巖刻文)
'암각문(巖刻文)'이란 '바위(巖)에 새겨진 글'이란 뜻이다.
내 고향 포천에는 국보나 보물에 버금가는 암각문이 있어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철원부사 동강(東岡)이 쓴 백로주(白露洲)를 비롯하여 소주(素州)가 쓴 우암의 세분의 절구를 차운한 글이 있고 만세입국(萬世立極), 중성공자(衆星拱之) 그리고, 평양북신(平壤北辰), 외북신석화서문인대명(北辰石華西門人帶銘)이란 각문(刻文)이 있다.
백로주(白露洲) 암각문은 성해응의 글로보아 우암, 백주, 용주, 감호의 절구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연락처 02-932-2434